

<언어와 매체>

35. 정답: ④

<초성자 용자례>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인 '러울'에서 '러'의 'ㄹ'과 '울'의 'ㄹ'은 각각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.

36. 정답: ④

'산 거미'(>산 거미)의 '거미'는 '거미'로 변하여 이중 모음 'ㄴ'이 단모음 'ㅣ'로 변화하였으므로, ㉠이 아니라 ㉡에 해당한다

37. 정답: ①

'조그맣-'이 '조그매'로 활용하는 것은 모음조화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㉠-1과 활용의 유형이 같다. 하지만 '이렇-'이 '이래서'로 활용하는 것은 모음조화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㉡과 활용의 유형이 같다.

38. 정답: ㉢

㉢ ㉠과 ㉡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㉢, 즉 '영화 상영 시간'을 기준으로 정해진다.

① ㉠과 ㉡은 가리키는 시간이 같다.

②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㉠은 과거를, ㉡은 미래를 각각 가리킨다.

④ 이동의 출발 장소가 ㉠은 식당, ㉡은 학교로 상이하다.

⑤ 기준으로 삼은 방향이 ㉠은 영화관을 등지고 보는 방향, ㉡은 영화관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서로 다르지만, 결국은 같은 곳을 의미한다.

39. 정답: ㉣

관형어 '딴'을 수식하기 위해 부사 '전혀'를 부사어로 썼고, 서술어 '해결했다'를 수식하기 위해 체언 '한순간'에 부사격 조사 '-에'를 결합한 '한순간에'를 부사어로 썼다.

40. 정답: ㉡

'진행자'가 '전문가'에게 '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?'라고 요청했다. 이에 대해 '전문가'는 '네,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짜장면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고 자장이라 표기하면서도 짜장으로 발음해 온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짜장면이 자장면의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'라고 대답한다. 이로 보아 '전문가'는 '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제시한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하였'음을 알 수 있다.

41. 정답: ㉠

게시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.

42. 정답: ㉤

'성호'는 '근데 신문에서 짜장면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일상에서 널리 쓰였다고 해도 괜찮을까?'라고 하며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. 이를 '방송에서 다루는 정보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'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

43. 정답: ③

'반영하지'가 동사이므로 보조 용언 '못하다'는 보조 동사에 해당한다. 그리고 보조 동사 '못하다'는 '(동사 뒤에서 '-지 못하다' 구성으로 쓰여)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'을 뜻한다. 따라서 '보조 용언 '못하다'를 사용하여, 어문 규범이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일이 지속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.'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

44. 정답: ③

대화 내용을 복사하는 기능을 활용한 것은 맞지만, 애초에 정호가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'상대방의 질문에 답'한 것은 아니다.

45. 정답: ⑤

(나)의 학생회 누리 소통망 대화에서 '검색 자료의 변화'에 대한 '미희'와 '동주'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.

